

# 가이오를 향한 개인화 -요한삼서

열왕기상 18:4, 요한삼서 1:1-4

정운돈 목사님

전교인수련회를 RUTC에서 은혜롭게 진행하고 왔다. 평생 기도제목을 붙잡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다 없애고 기도제목을 정리하고 기도하는 시간만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았다. 나도 다시 한 번 평생 기도제목을 정리했다. 옛날 내가 고등학생 때 일 년 동안 날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떠올랐다. 신학생이 되고는 버렸는데, 다시 붙잡았다. 경제적으로 부모님이 어려우니까 돈 놓고 기도했는데, 조 단위의 순이익을 낼 수 있는 회사를 세우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오래 전 일이다. 1년 동안 계속 기도했다. 그런데 신학교 가면서 버렸던 것을, 다시 붙잡게 되었다. 3기업을 두고, 우리 램프와 중직자를 통해서 이 일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1천만 제자를 세우고, 전 세계에 3기업을 할 수 있는 5천 개 이상의 RUTC를 세우게 해 달라고 나는 기도한다. 중직자, 램프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마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면서 나는 램프 한 사람을 보면 석박사 공부를 꼭 하라고 시킨다. 한 복지시설, 한 RUTC를 책임지는 원장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이 나라와 민족이 스위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나 스웨덴보다 더 좋은 복지국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내 동생이 제주도 의 사회복지시설 이사장인데, 호주에 갔다 와서는 그런 말을 했다. “우리 한국은 안 되겠다. 우리는 자원도 없고 땅도 없는데 거기는 자원도 너무 많고 땅이 넓으니.” 그래서 강의를 듣고 왔는데 짜증이 났다고 한다. 호주는 모래만 퍼다 날라도 복지금이 다 나온다고 하니깐. 그래서 이야기했다. “네가 그 응답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가 환경이 안 좋아서가 아니다. 조선시대 때를 생각해 보라. 우리가 힘이 없으면서 서로 싸움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못 다스리니까, 청나라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고, 또 러시아와 일본의 전쟁터가 되었다. 강대국 간의 경쟁 속에서 나라를 잃고 식민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미소 냉전시대 때에는 나라가 갈라지게 되었다. 원인은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하나되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으면 모든 나라가 다 응답이 되었을 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만 시달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도 사드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여러분, 모든 응답은 주님의 손 안에 있다. 그래서 의인 열 명, 가이오 같은 믿음의 사람, 영적 서함으로서 요한 같은 사도가 일어나야 한다. 원인은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있다. 오늘은 요한삼서를 통해,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한다.

## 서론 : 요한이 기록한 세 종류의 성경

먼저 요한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세 종류의 성경을 기록했는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일(1), 이(2), 삼(3)서의 서신서들이다.

(1) 첫째 요한복음은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가장 쉽고도 깊이 있게 기록한 복음서다. 복음을 깊이 묵상하면서 재창조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다. 사도 요한이 이 복음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개인화, 교회화, 현장화한 메시지가 바로 요한복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 그냥 그것을 남겨두면 안 된다. 현장화, 개인화, 교회화, 국가화시켜야 한다. 세계복음화로 가야 한다.

(2) 둘째로 요한계시록은, 신약성경 중에서 가장 해석이 어려운 책으로 알려져 있다. 내용 대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옛그제 지교회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처음 알았다고 했다. 요한계시록은 세례 요한이 기록한 것인 줄 알았다는 것이다. 두 성경이 너무 다르게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좋은 영화배우는 다른 영화에 출연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지 않나? 사도 요한은 정말 성령충만을 받아, 시대와 현장에 맞는 시대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우리도 이런 작품을 남겨야 하지 않겠는가.

(3) 셋째로, 요한일, 이, 삼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 요한은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은 사도였지만, 그런 덕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를 현장과 교회에 전달할 수 있었던 전도자였다. 우리가 이 시대 가장 필요한 현장에, 그런 내용과 메시지로 쓰임받는 전도자가 될 줄 믿는다.

## 1. 첫 번째로, 요한삼서를 묵상하기 전에, 요한일서의 내용, 요한이서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

(1) 요한일서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다.

① 당시 교회와 성도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참 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오늘 포럼을 하셨는데, 이단에 빠진 학생에게 예수가 무슨 뜻인지 아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느냐 물어봤는데 모르더라고 했다. 지금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다. 왜 오직 예수인지, 왜 복음이어야 하는지, 왜 종교는 안 되는지 모르고 있다. 종교는 사단을 섬기는 것이다. 사단을 이길 수 없다. 모든 종교는 사단을, 귀신을 섬긴다. 노력해서 천국 가려고 한다. 노력으로는 그러나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어떤 종교도 구원, 천국, 지옥,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오직인지를 모른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종교만 훌륭하다는 말이 아니다. 그래서 근본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야 한다. 이번에 대만에서도 절을 세 곳 움직이는 스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었다. 어제 RUTC뉴스에 나왔지 않나. 우리 다락방 멤버 목사님 한 분은 주지스님에게 복음을 전해서 1년 동안 절에서 다락방을 했다고 한다. 답을 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불교 스님들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다. 집 나와서 머리 깎고 세상 버리고 유니폼 입고 살지 않나. 교회에도 욕심 부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나 그 훌륭함 가지고는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 못 한다. 스님들이 다 가위늘리고 있다. 다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다. 복음으로 치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②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사상이 성경의 절대 진리를 왜곡하는 문제가 있었다. 복음을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도 가짜곤 좀 긴 분들은 복음을 지식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는 교수님들을 만나서 다락방 할 때 제일 먼저 대답했다. “우주의 끝이 어디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지성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것이 훨씬 많다. 왜 사람은 죽는가. 근본 원인을 모른다. 왜 죄가 나쁜가. 정말 중요한 것은 모른다. 성경만이 참 진리, 참 해결책을 알려준다. 영지주의자들은 이것을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하니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을 수 있느냐 하면서 세상 철학을 가지고 기독교 교리를 분석하려고 했다. 그러다가 유럽 교회는 다 문을 닫는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이성으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가. 어떻게 연역과 귀납으로 천국과 지옥을 증명하겠는가. 이성도 결국은 육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하신다. 그 믿음이 그냥 오는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할 때 믿어진다. 이것은 맹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니까 우리의 뇌세포와 상관없이 믿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충만을 받아야 한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믿어진다. 모든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영지주의자의 말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생기니까,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 요한의 서신이었다.

③ 세 번째 문제는 성도들이 참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학은 많이 발달한 것 같지만, 진정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은 못 누리고 있다. 삼위일체를 이론으로 믿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성적, 교리적으로만 알지, 사랑을 실제 하지 않으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는 것이다. 머리로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는가. “너희가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요일4:20).”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알면 될 하겠는가. 십자가를 알면 될 하겠는가. 내가 십자가에 안 못 박히고, 성질 내가 다 부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고집부리는데, 복음화가 안 된 것 아닌가. 너무 중요한 이야기들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집에서 화를 내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가 말했다. “아빠, 저것(벽에 붙어있는 복음소식)을 보고도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머리로만 외웠을 뿐이지, 그 복음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 각인, 뿌리, 체질, 무의식, 잠재의식의 근본을 복음으로 바꾸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개인화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일서를 보낸 것이다. 그냥 편지를 보낸 게 아니다. 바울이 죽은 후에도 요

한은 20, 30년을 더 살았다. 그런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는 절실한 마음이 있었다. 교회가 부흥되니까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이다. 요한이 볼 때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록한 것이 요한일, 이, 삼서이다.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복음을 이해하고 전해야 하니까, 그 복음을 더 깊이 묵상하고 알도록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 요한이 지금 한국교회를 본다면 그런 느낌을 가질 것이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그리스도인 맞는가. 교회가 맞는가. 이렇게 해도 되는가. 말로만 그리스도, 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하면서 악용하고 있지 않는가.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가. 그런 인물이 열 명 만 나와도 하나님은 교회와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2) 요한이서와 요한삼서는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화된 메시지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개인에게 주어야 하는 메시지는 다르다. 요한일서는 교회 전체, 성도 전체에게 준 메시지였다면, 요한이서는 부녀 개인에게 준 메시지였다. 개인화를 위해서 준 메시지다. 요한이서 1:4을 보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는 자기가 전도했던 사람을 요한에게 붙여준 것이다. 그런데 이 부녀가 이단에게 영향을 받을까 하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요한이 편지를 보낸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면서 말씀한다. 요한이서 1:12-13에, 먹과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주어야 할 메시지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모든 불신앙의 문제를 끝내 버려야 한다. 생각이 많고 할 말이 많고 주장이 많고 갈등이 많은 것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한이 개인적으로 가서 만나서 답을 준 것이다.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이 답으로 붙잡아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 지도자와 소통이 되는 믿음의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받은 말씀을 부녀는 언약으로 붙잡은 것이다.

## 2. 두 번째로, 요한삼서를 기록한 이유와, 요한삼서의 수신자인 가이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언약을 생각해 보자.

(1) 요한삼서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이유는, ‘디오드레베’라는 성도가 문제를 교회에서 일으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려고 하고, 내 주장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고집을 피우며, 안 되면 싸워야 하는 것이다. 디오드레베라는 이름 자체가 ‘제우스에게 양육된 자’라는 뜻이다. 창세기 3, 6, 11장, 사도행전 13, 16, 19장의 배경이 그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이름이다. 과거의 악한 체질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거듭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완전히 거듭나게 되기를 축원한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하도 강패짓을 하면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더 센 강패가 와서 쫓겨났다. (웃음) “칼 맞고 나갈래, 그냥 나갈래?” 이래서 나간 것이다. (웃음) 강패가 역사하게 되면 되겠는가. 천사가 역사하는 체질이 되기를 바란다.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섬기는 자가 되라. 여러분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더라도 기도하며 기다려라. 또, 악한 말로 사도 요한과 전도자들을 비방하고, 전도자들을 맞이하지 않았다. 대단한 사람이다. 요한삼서 1:10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이하지도 아니하고, 맞이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 도다.”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들은 교회에서 맞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복음을 아는데도 이 정도 수준이면 안 되지 않겠는가.

(2) 그러면 반대로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신약성경에는 모두 다섯 번에 걸쳐 가이오라는 인물이 나온다. 사도행전 19:29, 사도행전 20:4,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6:23의 식주인 가이오-개역개정판 번역으로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자’로 나오는 유명한 가이오가 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4, 요한삼서 1:1의 가이오다. 신학자들은 이 중 네 명이 다른 사람이다, 세 명이 다른 사람이다 하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이오는 2명에서 4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이오들이 다 좋은 일을 했다. 일일이 다 설명하기 힘들니까,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 보자. (웃음)

① 이 가이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나는 기쁘다’라는 뜻이다. 여러분,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나는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② 가이오는 어떤 인물이었는가? 구약성경의 오바다, 사도 요한, 데메드리오, 가이오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데메드리오라는 이름은 은장색이라는 뜻이었다.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가 복음을 막던 은장색에서 변화되어 복음을 위해 쓰임을 받게 되었는데, 디오드레베는 변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여러분이 모두 변화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란다.

③ 오바다, 가이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은 그냥 부자가 아니라 헌신적인 부자였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가이오는 자기 집을 미션 홈으로 제공한 사람이었고, 우선순위를 잊지 않은 산업인이었다.

④ 그래서 요한은 요한삼서 1:2에 그를 칭찬하면서 말씀하고 있다. 중직자 여러분들이 가이오를 본받으시기 바란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가이오는 이 응답을 받았다.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모든 응답을 받게 된다. 경제, 만남, 교회, 후대, 모든 것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응답으로 받게 될 것이다.

⑤ 또 가이오는 목회자의 보호자였다. 반대자, 대적자,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목회자의 보호자 역할을 하시기 바란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아버지의 유연이, 절대 목회자와는 싸우지 말라는 것이었다. 목회자가 부족해도 평신도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그것을 직접 맞아서 싸우려고 하면 너무도 많은 손해를 보게 된다. 우리 아버지의 뼈저린 고백이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보호자가 되시기를 바란다. 그는 사랑받는 자였고 동역자였으며, 전도자와 소통이 되는 인물이었다.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영적인 비밀결사대의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란다.

### 결론 : 세 가지 미션

결론적으로, 요한 사도와 가이오, 오바다와 데메드리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할 세 가지 미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1) 첫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본받아야 한다. 깊은 기도 속에서, 이 복음이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증거되도록 기도하다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함으로써 천 년, 이천 년의 응답을 받은 요한의 영성을 본받아 응답받고 축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여서, 위키시대에 교회를 보호하고 응답받은 가이오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란다. 이것이 영적 서밋이다.

(2) 둘째로, 기능 서밋의 응답을 본받아야 한다. 요한은 전도자로서 기능 서밋이 되었다. 말씀을 잘 정리하고 제자화를 시키는 것이 목회자의 기능 아닌가. 가이오는 산업인, 중직자로서 기능의 응답을 받았다. 현장의 선교사가 된 것이다.

(3) 셋째로,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아야 하겠다. 요한 사도가 기록한 말씀은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 교회와 문화를 변화시킨 작품이 되었다. 가이오는 중직자로서 교회와 현장의 경제, 문화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싸움을 남기고, 독재를 남기고, 신비주의를 남긴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랑의 문화, 헌신의 문화를 남긴다. 어떤 장로님은 집을 팔아서 교회 현당을 위하여 현금으로 드렸는데, 그 자녀 여덟 명이 다 큰 응답을 받고 각 분야의 주역이 되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시대를 바꾸고 문화를 바꾸는 각 분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란다. 복음을 누리는 개인화의 축복, 참 진리와 참 사랑이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와 오바다에게 각인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개인화를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란다. 여러분의 후대가 바로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축원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불러주셔서 참 복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영적 서밋, 기능 서밋, 흑암 문화를 완전히 개혁할 서밋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 문화적으로 탐에 이르러서, 전 세계를 복음으로 살리고 도울 수 있도록, 그런 나라와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